

## 5. 지급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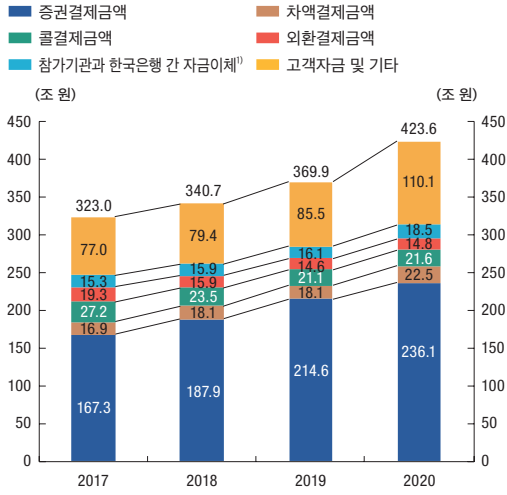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중에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sup>73)</sup> 및 개선하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제공 비율 인하 및 담보범위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 가. 한은금융망 운영

#### 원화자금 결제금액 증가세 지속

2020년 중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423.6조 원으로 2019년에 비해 14.5% 증가하였다. 결제자금 종류별로는 증권자금 결제금액이 기관간 RP 등을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차액자금 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2019년에 비해 큰 폭 증가하였다. 콜자금 및 외환자금 결제금액은 2019년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그림 III - 18.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일평균)



주: 1)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자료: 한국은행

####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20년 일시결제부족자금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4,862억 원으로 2019년보다 14.3%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일중당좌대출<sup>74)</sup> 일평균 지원금액은 6,0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일중RP<sup>75)</sup> 일평균 지원금액은 2조 8,832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73)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

74) 은행들의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당일 상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75)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 III- 16.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 (일평균)

(10억 원, %)

	2018	2019	2020	증감률 <sup>2)</sup>
일중당좌대출 <sup>1)</sup>	328.5	432.1	603.0	+39.6
일중RP	2,147.9	2,618.1	2,883.2	+10.1
계	2,476.4	3,050.2	3,486.2	+14.3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2019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sup>76)</sup>에 관한 원칙<sup>77)</sup>(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sup>78)</sup>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중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결제시스템인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및 2019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오픈뱅킹공동망과 관련하여 결제불이행 대비 대응체계, 참여기준 등의 제도 정비, 운영리스크 관리 등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

장치를 일부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개 국내은행과 1개<sup>79)</sup>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국내은행은 일중 유동성 관리 등 지급결제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무지속계획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목표복구시간을 지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운영기관(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에 즉시 보고하는 절차를 IT 장애대응 내부지침 등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이체업무 수행 현황 및 결제유동성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본점 폐쇄 가능성 등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의 수립·운영 현황을 살펴 보고 전산시스템 운영 등 운영리스크 관리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76)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CCP), 중앙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 구성된다.

7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이다.

78) CPMI-IOSCO는 PFMI를 보완하기 위해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지침 (2017년 7월)», 「CCP 복원력 추가지침 (2017년 7월)」등 국제기준을 추가 제정하였다.

79) 2020년 중 한국은행은 연간 3회 정도 실시하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회 실시하는 대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이들 회사의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였다.

##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한국은행은 2015년에 착수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한은금융망은 1994년 최초 가동 이후 오랜기간 동안 혼합형 결제, 서버접속방식, 증권대금동시결제, 일중 RP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개선, 결제계좌 정비 및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 확대, 증권대금동시결제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으로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편의성이 제고되고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다양화, 코로나19 등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소액결제시스템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참가기관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정책을 마련하였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개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참가하도록 참가방식을 명확히<sup>80)</sup> 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 시에도 결제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참가제도를 개선하여 한은금융망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대응조치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4월 지급결제 부문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금융기관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순이체한도의 70%에서 50%로 인하하였다. 또한 국제기준(PFMI)<sup>81)</sup>에 맞춰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10% 포인트씩 인상하려던 당초의 인상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하였다. 동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규모가 총 10.1조 원 정도 줄어들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었다.

80) ①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보유, ②지급준비금 예치 및 한국은행의 결제유동성 공급 대상, ③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대상, ④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차액결제에 직접참가하고, 여타 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에 간접참가 하도록 하였다.

81)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Principle 4: Credit risk: An FMI should effectively measure, monitor, and manage its credit exposures to participants and those arising from its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processes. An FMI should maintain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cover its credit exposure to each participant fully with a high degree of confidence.

표 III- 17.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						
		기존	2020.4	2020.8	2021.8	2022.8	2023.8	2024.8
변경전	70		70	80	90	100	100	100
변경후			50	50	70	80	90	100

자료: 한국은행

이와 함께,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에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일반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시적(2020년 5월 25일~2021년 3월 31일)으로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하였다.

표 III- 18.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대상 담보증권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주금공 MBS, 산금채, 중금채, 수출입금융채,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li> </ul>	(좌 동)	상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권,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sup>1)</sup></li> </ul>	2020년 5월 25일~2021년 3월 31일

주: 1)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료: 한국은행

### 지급결제 혁신 관련 연구 강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암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 지급결제 혁신과 관련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였다.

CBDC와 관련해서는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을 금융결제국 내에 신

설하고 CBDC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특히 가상의 제한된 환경에서 CBDC 및 관련 시스템의 주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계획을 2020년 4월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CBDC 설계 요건 정의 및 구현기술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컨설팅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중에는 가상환경에서의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2020년 6월)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증권대금동시결제를 분산원장기술로 구현하는 모의테스트를 2020년 4월 중 완료하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과 관련한 규제 현황 및 방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4년간 수행해 온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산하 지급결제회의(WGPMI, Working Group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의 의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울러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회원으로서 글로벌 주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경과,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시행 등을 국외에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보고서 집필진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 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20년 11월에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유럽중앙은행(ECB) 및 헝가리중앙은행의 전문가들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였다.